

2006年 2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論文

2  
0  
0  
6  
年  
2  
月

教  
育  
學  
碩  
士  
學  
位  
論  
文

眞  
偽  
判  
斷  
의

모  
달  
리  
티  
에

관  
한

考  
察

金

美

良

# 眞偽判斷의 모달리티에 관한 考察

- 推量表現「だろう」「ようだ」「らしい」을 中心으로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美 良

# 眞僞判斷의 모달리티에 관한 考察

- 推量表現「だろう」「ようだ」「らしい」을 中心으로 -

*A Study of the inferential expressions in Japanese*

2006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美 良

# 眞僞判斷의 모달리티에 관한 考察

- 推量表現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丁 意 祥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5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美 良

金美良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朴 青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丁 意 祥 印

2005年 12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 목 차

## 영문초록

I. 서 론	.....	1
II. 본 론		
1. 선행연구	.....	4
1.1 모달리티의 규정	.....	4
1.2 추량표현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모달리티적 위치	.....	6
2.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意味와 用法	.....	11
2.1 「だろう」의 意味와 用法	.....	11
2.2 「ようだ」의 意味와 用法	.....	15
2.3 「らしい」의 意味와 用法	.....	23
2.4 판단근거 정보에 따른 意味와 用法	.....	25
2.4.1 간접정보일 경우	.....	25
2.4.2 직접정보일 경우	.....	29
3.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기능적 역할의 특징 ...	.....	33
3.1 「ようだ」와 「らしい」의 기능적 역할	.....	33
3.2 「らしい」와 「だろう」의 기능적 역할	.....	35
3.3 「だろう」와 「ようだ」의 기능적 역할	.....	37
4.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비교분석	.....	41
4.1 조건절과의 상관관계의 분석	.....	41
4.2 근거제시와 비근거에 따른 분석	.....	43
III. 결 론	.....	46
참고문헌	.....	49

# *ABSTRACT*

## *A Study on the 「darou」 「rasii」 「youda」 as an Expression of Supposition*

-At the point of the modality estimation-

Kim MiYang

Advisor Jung Eui-sang

Majoring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o make a sentence as the language, It's natural that people whose native language is japanese don't make the mistake by using japanese. If they make the mistake, it will be rare.

But, If the those who study japanese by nonnative language don't know the appropriate rules of composition, It can be cause of the deficiency of the correctness, misinterpretation on the communication

On the study of the 「darou」 「rasii」 「youda」 as an expressions of supposition, It's estimated that the auxiliary verb 「rasii」 is similar to 「youda」. When there is an objective fact, auxiliary verb 「rasii」 is used.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 between 「darou」 and 「rasii」, 「youda」 is used, when it's up to their own estimation. On the other hand, 「rasii」 depends on the information earned.

Among the simplified expression, 「darou」 is used, when we think we

are sure. But It's not used, when we speak to other people.

That's why 「darou」 is very subjective expression of supposition depending on speaker's expectation. So it's used, when speaker emphasize the their opinion on the speech.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expressions of supposition 「darou」 「rasii」 「youda」 are used as a subordinate concept of the modality and indicates the difference and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So we can provide the adequate way to study japanese.

## I. 서론

문은 言語活動의 기본적인 단위이다. 언어활동의 기본적 단위인 문에는 발화자의 외적세계와 내적세계가 관련하여 대상적인 내용이나 발화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심상들이 표출되어 있다. 즉 文 구성 요소로 크게 대상적인 내용인 서술내용(Proposition)과 발화자의 심상의 표출이라고 하는 모달리티(Modality)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文의 체계를 종래의 統辭的인 요소에서 意味論的·話用論的 要素까지 설명하고 있다.

- 太郎が部屋にいる。

위의 예문과 같이 단순히 「～である」 「～した」와 같이 断定적인 표현만으로 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太郎が部屋にいるようだ。
- 太郎が部屋にいるだらう。

이들 「ようだ」, 「だらう」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文은 話者が 말하고자 내용부분이 「太郎が部屋ににいる」라고 하는 서술내용(Proposition)과, 그 내용에 대한 話者の 파악방법이나 판단, 전달, 발화적 태도등이 표현되는 「ようだ, だらう」와 같은 형식의 모달리티(Modality)가 합하여 비로서 완성된다. 즉, 文中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달리티나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을지라도 文中에서 발화자의 심상을 나타내는  $\emptyset$ 모달리티든 화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最小單位로서 모달리티가 없는 文은 제대로 된 文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문은 發話者が 發話하여 상대방에게 발화자가 의도하는 내



용이나 심상을 전달하고 상대방은 의도하는 내용이나 심상을 깨닫는 과정이 반복되는 言語活動의 基本單位인 것이다. 이러한 言語活動의 기본 단위인 文을 형성하는데 있어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고 当然視되어 오용하는 예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文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전달하는데 문법 사항에 정확히 熟知하고 熟達시켜 놓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 중 發話者로서의 심상을 정확한 伝達뿐만 아니라 対談者の 眞偽判斷하는데 正確성이 欠如되거나, 서로에게 誤解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오용의 遇를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법사항중 文末表現 「~だろう」「~ようだ」「~らしい」는 話者が 불확신한 판단을 표현하는 推量の 助動詞로서 연구되어 왔으며, 현대일본문법 연구에 있어서는 話者の 眞偽判斷을 나타내는 眞偽判斷形式의 모달리티적 기법으로 접근하여 推量법의 통일적이며 유기적인 설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文에 있어 統辭論的 性格뿐만 아니라 意味論的 성격과 함께 談話論的 방법으로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太郎の部屋に人気を感じて) 太郎が部屋にいるらしい(?? だろう)

위의 예문에서처럼 발화자가 太郎의 방에서 나는 인기척을 듣고 太郎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發話 할 때 「らし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추량표현의 의미라고 해서 「だろう」을 사용하면 어색하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실제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일본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 일본어 교과서에서도 構成과 内容에서 종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종전에는 文法이나 文型등 언어의 구조적 이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는 구

체적인 언어 표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1)</sup>

이런 취지에서 推量助動詞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教授・學習方法도 일본어과 教育目標중 하나인 意思疏通 機能의 신장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本稿의 目的과 일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중 일본어 학습자가 잘못된 추량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모국어로 사용하는 일본인은 상대자가 외국인임을 勘案하여 발화내용이나 심증을 일본인 스스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다음 대화로 넘어갈 뿐 외국인인 발화자에게 굳이 문법적으로 오용을 설명해주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고스럽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한다고 해도 일본인 스스로에게는 当然視되는 표현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기란 더더욱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일본어의 학습자가 일본어를 사용하여 언어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개념을 정립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잘못 습득된 언어활동은 바로잡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 자체를 알지 못한 채 굳어져 버린 언어습관은 바로잡기란 여간해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本稿는 이렇듯 오용의 遇를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법사항중 本稿는 모달리티의 하위 범주중 真偽判斷形式의 추량 문말 표현 「~だろう」「~ようだ」「~らしい」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의미와 용법들의 여러 양상들을 살펴보고, 비교분석과 변별특징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올바른 구별법을 고찰함으로써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추량표현에 있어서 일본어다운(日本語らしさ)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교육부(2000),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185

## II. 본론

### 1. 선행연구

#### 1.1 모달리티의 규정

文 구조를 파악하는 문법론은 종래에는 文을 형태적인 구성소를 중심으로 主語部와 術語部로 구분지어 文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보편적이었으나, 현대 일본어문법론에서 文의 意味을 중심으로 文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文法論이 다각적인 고찰 방법으로 연구가 활발이 전개되고 있다.

文의 의미를 중심으로 文의 구조를 파악할 때 話者が 말하고자 하는 내용 부분의 서술내용(Proposition)과 그 내용에 대한 話者の 파악방법이나 판단, 전달, 발화적 태도등이 표현되는 모달리티(Modality)라 이분하여 고찰하는 방법이다. 즉, 文의 구조를 의미를 중심으로 이분하여 話者が 말하고자 내용 부분을 서술내용(Proposition)과 그 내용에 대한 話者の 파악방법이나 판단, 전달, 발화적 태도등이 표현되는 모달리티(Modality)가 합하여 비로써 완전한 文이 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 보통 모달리티(Modality)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 文은 말하는 이에 따라 어떤 특정한 사태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판단 태도가 동시에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하는 이의 판단 태도는 상대방에게 확고한 신념을 알리는 確言,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疑問, 듣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의 命令, 禁止, 依賴, 참이라고만 판단할 수 없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서술하는 概言, 어떠한 사실을 덧붙여서 서술하거나 알리는 說明등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태나, 상대방에 대한 말하는 이의 판단,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형식을 일괄해서 모달리티(Modality)라고 부른다.

모달리티(Modality)의 정의라든지 용어는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면을 보이고 있지만 모달리티(Modality)가 말하는 이의 심적 태도에 의한 표현이라는 점은 공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서술내용(Proposition)과 모달리티(Modality)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命名하기도 하는데, 話者が 말하고자 하는 서술내용(Proposition)을 詞, 叙述(내용), 命題, 言表事態, コト、ディクトウム(dictum)라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한 話者の 파악방법이나 판단, 전달, 발화적 태도등이 표현되는 서술태도(Modality)은 辞, 陳述, ムード, 言表態度, モドゥ스(modus)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서술내용과 모달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仁田義雄(1991)에 따르면 「文에는 전달하려는 내용인 言表事態<sup>2)</sup>와 함께 말하는 이의 심적인 태도나 판단을 나타내는 문 전달태도로 文의 양대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이 양대 구성요소 중 말하는 이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을 모달리티라하고, 모달리티는 주관성이 언어화된 것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하려고 표현하는 것으로 주체에 직접 관계된 사실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sup>

益岡隆志(1991)에 따르면 모달리티란 「객관적으로 파악된 상황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 표현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말하는 이의 표현 태도에 있어서의 심적 사항이 언어로써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益岡隆志(1991)는 「ムード」와 「モダリティ」와 구별하고 있다. 「ムード」는 동사류의 屈折体系에 대한 문법범주이고, 굴절의 체계를 가진 유형의 언어에만 있는 유의미한 개념이고 「モダリティ」는 언어의 個別的, 類型的인 本然의 모습과 관련될 수 없는 一般성이 강한 概念이므로 그 현상은 언어에 의해 다양하지만, 어떤 형태로 모든 언어에 관련 될 수 있는 문법 概念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文은 객체화된 세계를 표현한 命題와 말하는 이의 구조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모달리티로 구성되어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言表事態라는 용어는 仁田義雄가 사용한 용어로 文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내용(發話 내용)과 전달하려는 태도(發話태도)로 양분해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을 言表事態라 하였다.

3) 仁田義雄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ひつじ書房, 1991. p.18

## 1.2 추량표현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모달리티적 위치

그러면, 일본어학에 있어서의 모달리티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추량표현」 조동사가 모달리티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학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어에 있어서 본격적인 모달리티론을 전개한 것은 寺村秀夫(1984)라 할 수 있다.<sup>4)</sup>

寺村秀夫(1984)는 모달리티를 文을 연결시키는 모달리티와 뒤에 연속되는 文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모달리티와의 2종류로 나누고 있다. 이것은 주절의 모달리티 뿐만 아니라 종속절의 모달리티까지 인정한 것으로 文을 완결시키는 모달리티에는 確言, 概言, 意志表明, 勧誘, 命令, 要求 등이 있고, 종속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달리티에는 조건제시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寺村秀夫(1984)는 文을 화자의 객관적인 세계의 思想・心理를 표현하는 「こと」와 그 내용을 소재로서 화자가 표현하려는 태도를 「ムード」로命名하여 이분하고 있다. 그리고 「ムード」를 다시 문의 필수적인 구문요소인 활용형을 「一次的ムード」, 活用形에 후속하는 概言의 助動詞類와 説明의 助動詞類를 「二次的ムード」、終助詞, 取り立て조사, 感動詞를 「三次的ムード」의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본고의 고찰 대상인 문말표현의 조동사류를 概言의 조동사류와 説明의 조동사류로 나뉘 「이차적ムード」라는 테두리에서 개별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概言」 조동사류는 “어떤 사태의 진위에 대하여, 그것을 자신이 직접보거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確言할 수 없지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로부터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정

---

4)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1984

의하고 있다. 어떤 사태의 眞偽, 確信에 대한 말하는 이의 판단을 많은 이 자신의 직관, 개인적 경험, 주위의 상황, 또는 다른 이로부터 전해 들은 일 등에 기초해서 주관적인 추량으로서 서술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だろう」 「~ようだ」 「~らしい」 「(し)そうだ」 「にちがいない」 「かもしれない」 를 들고 있다.

仁田義雄(1991)는 文에는 전달하려는 내용인 言表事態와 함께 말하는 이의 심적인 태도나 판단을 나타내는 문 전달태도로 文의 양대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이 양대 구성요소 중 말하는 이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을 모달리티(Modality)라 命名하고, 모달리티(Modality)는 주관성이 언어화된 것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하려고 표현하는 것으로 주체에 직접 관계된 사실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仁田義雄(1991)는 모달리티(Modality)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발화시의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부터 명제에 대한 파악방법을 나타내는 ‘對事的 모달리티’와 ‘發話・伝達모달리티’란 언어활동의 기본적인 단위인 文이 어떠한 유형으로 發話・전달적 역할, 기능을 표현하는 ‘發話・伝達모달리티’로 분류하고 있다. <sup>6)</sup>

對事的 모달리티는 명제에 대한 파악방법에 관한 말하는 이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명제의 내용에 대한 말하는 이의 확실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문법적인 카테고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립은 명제의 내용을 확실한 것으로 표현하는 제로형식과 확실함을 결여한 내용으로 표현하는 형식과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

5) 仁田義雄,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ひつじ書房, 1991. p.18

6) 仁田義雄, 상계서, p.19

- (1) 美津はたぶん自慢する。
- (2) あの飛行機はどうやらとびたつらしい。
- (3) 明日は雨になるかもしれない

예(1)은 진위판단의 모달리티가 제로형식에 의해 표시되어 술어의 형식은 無標의 스ル형에 의해 나타나지만 'タブン ~スル' 와 같이 부사의 움직임에 의해 文 전체로써는 추량의 상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2)와 (3)은 'らしい' 'かもしれない' 의 대립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추량의 확인정도에 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추측의 확신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부적, 내부적 세계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추출해낸 추량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文末의 모달리티 형식으로 ダロウ, ハズダ, ヨウダ, ラシイ, ソウダ, ニチガイナイ, カモシレナイ 等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益岡隆志(1991)는 문의 구조를 객관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요소인 「命題」와 주관적인 판단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요소인 「모달리티」 2대 요소가 문을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또한 모달리티를 객관적으로 파악된 상황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 표현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말하는 이의 표현 태도에 있어서의 심적 사항이 언어로써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객관적인 사실에 대응하는 표현형식이 아니고, '외계의 사실'을 소재로서 말하는 이가 断定하거나 推定 혹은 그와 같은 判断을 더욱더 정당화하려는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益岡隆志(1991)는 모달리티를 「表現系모달리티」와 「判断系모달리티」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모달리티는 표현자의 판단, 표현태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모달리티의 형식 중에 주관성을 표현하는 형식과 객관성을 표현하는 형

---

7) 益岡隆志(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판단, 표현태도를 나타내는 형식 중에는 文을 표현하는 주체의 표현행위에 기초해서 객관적 대상에는 사용할 수 없는 순수한 주관적인 표현태도를 나타내는 것 “表現系の 모달리티”과 표현자의 표현시의 판단만 나타내는 것 이외의 객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判斷系모달리티”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들의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자는 ‘表現 類型的 모달리티’와 ‘表現·傳達方法에 관한 모달리티’로 분류하고 있다. ‘表現 類型的 모달리티’는 모든 文에 관계함과 동시에 判斷系の 모달리티에 관한 방법을 결정짓는다. 한편, ‘表現·傳達方法에 관한 모달리티’는 표현유형의 차이에는 관계하지 않고 듣는 이에 대한 말하는 이의 文 전달태도를 나타내는 ‘傳達態도의 모달리티’와 정중함의 有-無를 표현하는 ‘敬語法の 모달리티’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益岡隆志(1991)는 본고와 관련있는 判斷系모달리티를 「대상이 되는 사태의 진위에 관해서 판단을 나타내는 모달리티라고 정의하고 표현자에 의해서 명제내용의 진위성이 정해지는 「規定真偽判斷」과 판단의 未定인 「未定真偽判斷」으로 2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規定真偽判斷」에는 대상이 되는 사태가 ‘真’임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断定」으로, ‘真’임을 限定하여 인정하는 「断定保留」로, 「断定」은 述語가 無標 형식으로 표현되고 「断定保留」는 「~だろう」 「~ようだ」 「~らしい」 등을 붙여 有標形態로 표현한다고 했다.

그리고 後者인 判斷系는 항상 주관성을 표현하는 1차적인 것과 어느 정도의 객관화가 가능한 2차적인 것으로 나누어, 각각 사태에 대한 판단과 명제간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의 심적 태도는 어떤 지식의 ‘真’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는 「確言」과 이에 반해 ‘真’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지식을 서술하는 「概言」으로 구분짓고, 益岡隆志는 概言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推定	- ヨウダ、ラシイ、ダロウ、ミタイ、ハズダ
直感的確言	- ニチガイナイ
樣態	- ソウダ

文末에 나타난 ヨウダ, 라시이, 다로우가 표현하는 의미는 ‘실증적 판단’으로 명제의 진위를 말하는 이의 사고 속에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가 참이기 위한 증거의 존재를 인식하는 점이다. 더욱이 명제가 참인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제의 진위가 불확실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明日は雨が降る (ようだ/らしい/だろう)>에서는 명제가 참이기 위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사태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sup>8)</sup>

지금까지 살펴본 학자들에 따른 분류를 종합, 정리하여 보면, 寺村秀夫(1984)는 「이차적 모드」의 테두리에 「概言」의 조동사류와 설명의 조동사류를 포함하여 화자의 주관적인 추량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仁田義雄(1991)는 명제에 대한 파악방법에 관한 말하는 이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对事的 모달리티의 카테고리로 추측의 확신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부적, 내부적 세계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추출해낸 추량정도를 나타내는 文末형식으로 다로우, 하자다, 요우다, 라시이, 소우다, 니치카이나이, 카모시레나이 등을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益岡隆志(1991)는 본고와 관련있는 요우다, 라시이, 다로우를 표현자의 표현시의 판단만 나타내는 것 이외의 객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判断系모달리티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추정표현인 일본어의 추량조동사가 제한하는 文末모달리티중 概言표현인 요우다, 라시이, 다로우가 화자의 판단근거에 기초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8) 宮岡達夫·仁田義雄、『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 くろしお出版, 1995,p184~185

## 2.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의미와 用法

본 장에서는 일본어 담화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일본어의 대표적인 추량조 동사라고 할 수 있는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본래적인 의미와 용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모달리티의 개념 규정에 기초를 두고 眞偽判断모달리티적 입장에서 일본어의 추량 조동사의 차이에 대해서 의미적인 면이 서로 다른 면을 판단근거의 간접성, 직접성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이의 심적인 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실제의 용례를 통해 文속에서의 이들 표현을 상호간의 의미를 분석, 비교하는데 기초로 삼기 위함이다.

### 2.1 「だろう」의 의미와 用法

「~だろう」는 화자의 素材로서 받아들여진 사실에 대한 추량, 즉 다양한 정보와 주위의 상황 등에 의거하여 어떤 사태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判断함을 나타낸다. 이 判断의 対象으로서는 判定할 수 없는 사태가 모두 포함하거나, 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태는 단지 相異한 상상이 지나지 않는 것이라도 개의치 않는다.<sup>9)</sup>

종래 「~だろう」, 「であらう」, 「でしょう」, 「ましょう」에 대해서 「だろ + う」、判定을 나타내는 「だ」의 未然形에 推測의 의미를 나타내는 「う」가 붙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sup>10)</sup> 실제 문내에서 접속관계와 역할을 살펴보면 「だ」는 그 쓰임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だろう」는 形容詞·動詞·助動詞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終止形の 뒤에, 형용동사는 어간

9) 日本語教育学会編,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1982

10)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에서 “推量を 나타내는 조동사 だろう는 원래 だ의 推量型으로, だ의 성질도 지니면서 조동사로 독립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현재와는 だ는 그 의미, 용법이 크게 다르다.

에, 명사는 직접 접속하여 「だろう」는 말하는 이의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森田良行(1980)는 「~だろう」의 기본적인 의미는 「추측이다」이라고 하고 있다.<sup>11)</sup> 氏は 「だろう」에 관해서 “화자가 확실히 이렇다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고, 단정을 보류할 때 사용하는 어투다. 너무 신중하거나, 자신이 없거나, 불확실 사실로 단언을 피한다는 기분일 때 사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 1) 5時には着くだろう。
- 2) あの人はあまり丈夫ではないだろう。

예문1)은 「だろう」의 접속 형태로써 문말표현을 나타내었으며, 예문2)는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저 사람은 괜찮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하는 이의 단순한 추측과 동시에 판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1) 推量

推量이라고 하는 표현은 화자의 推論을 나타내는 것으로 「だろう」 이외에 「らしい」、「ようだ」、「みたいだ」 등도 같은 표현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だろう」、「らしい」、「ようだ」、「みたいだ」 등은 推量の 표현으로 함께 분류하면서 비교 연구가 많이 되어 왔다.

정상철(1994)에 따르면 談話條件의 観点에서 だろう가 기본적으로 推量, 確認要求, 疑問, 感歎의 4가지 용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sup>12)</sup>

우선 推量이란, 언표사태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想像的인 것으로써 把

11) 森田良行(1980), 『基礎日本語2』, 角川書店, 1980, p222

12) 정상철(1994), 「ダロウ의 意味·用法의 概觀」, 일어일문학회

握, 판단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確認要求란, 일단 言表事態를 想像的인 것으로 판단하여, 情報的으로 優位에 있다고 가정되는 상대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疑問은 言表事態의 成立・不成立에 대한 話者の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감탄이란 兇見的인 事態에 의한 主体의 강한 情意를, 否定語(疑問連体詞)ナンテ와ダロウ를 修辭的으로 사용하여 表現하는 용법이라고 설명한다.

紫田武(1982)는 아래와 같이, 「だろう」는 추량의 표현 중에서도 ‘객관적인 근거가 매우 薄弱’할 경우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3) そのくらいのことは常識として知っているダロウと思った。

3) ‘ そのくらいのことは常識としてしっている) と思った。(X)<sup>13)</sup>

「と思う」의 앞에서는, ダロウ는 사용하더라도, 「ようだ・らしい」 사용할 수 없다. 이와같이 「思う」는 객관적인 근거가 극히 박약한 心的活動이기 때문에, <「だろう」에 비해서 객관적이며, 확실한 근거>에 의한 추량을 하는 「ようだ・らしい」는 접속할 수 없는 것이다. 「だろう」가 <推量の 객관적 근거가 극히 薄弱>하기 때문에, 「と思う」와 접속할 수 있다.

## (2) 確認

일반적으로 「だろう」가 추량의 조동사라는 사실에서 벗어나 확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일련의 사실들에 대하여 確認시킨다는 점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자도 어느 정도 그 정보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묻는 표현에 사용된다 것이다. 또한 「だろう」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13) 紫田武外, (1982), 『ことばの意味3』, 平凡社

화자가 청자에게 確認을 할 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14)

4) うちのクラスに田中っていただろう。昨日、三宮で偶然あいつとあったよ。

우리 반에 田中라고 있지?

어제 三宮에서 우연히 그 녀석과 만났어.

예문에서 ‘田中라고 있지?’ 라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는 確認기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だろう」는 疑問文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객관적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라는 「だろう」의 기능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ようだ・らしい」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確認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 丁寧

이렇게 제한적인 표현을 앞선 두 기능 推量과 確認과 함께 동등한 기능을 설명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일상 회화에서 그 쓰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기능인 丁寧이라는 명칭하에 설명할 수 있다.

5) ご注文は何でしょうか

주문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위 예문은 가게의 종업원이 손님에게 대한 공손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화자가 청자를 대우하여 공손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할 수

---

14) 森山卓良, (1989),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聞き手情報-聞き手情報配慮非配慮の理論-」、『日本語のモダリティ』, 仁田義雄益岡隆志, くろしお出版

있겠다. 대부분 의문사와 같이 하여 그 文은 의문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 2.2 「ようだ」의 意味와 用法

「ようだ」는 어떤 현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그 장소와 상황이나 주어진 정보를 기초로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와 같은 상태라는 話者의 감각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체험한 지식을 근거로, 추론하는 의미를 가진다. 때로는 간접경험에 의한 지식을 추측할 때도 사용하는데, 이 경우는 「らしい」와 의미가 같고 진술부사 「だぶん、まるで」등과도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문말의 술어에 첨가되어 쓰이며, 話者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지만, 「らしい」처럼 판단 그 자체를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술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태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도, 극히 주관적인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그 점에서는 「らしい」보다도 용법의 쓰임새 폭이 넓다 할 수 있다.

「ようだ」의 접속형태는 形容詞・動詞・助動詞의 終止刑에 접속하며, 형용동사에는 「な」의 형태이며, 명사에 접속할 때는 「の」를 넣어서 접속한다. 「ようだ」의 丁寧刑은 「ようです、ようでございます」이다.

먼저, 「様態」의 「ようだ」는, 어떤 것이 그렇게 될 상황에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6) あの話は以前どこかで聞いたようだ。

7) 私が訪ねた時、田中さんの家にはだれもいないようだった。

그러나, 단순히 근거가 없이 상상적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자가 아닌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근거로 해서 추측하고 그 어떤 사태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6)은 話者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흐릿한 기억을 7)는 話者が 직접 방문하였을 때 체험을 통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ようだ」는 화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직접 표현하는 말이다. 판단 근거는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거나 상관없으며, 객관적인 근거를 판단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らしい」와 거의 같은 의미가 된다. 「ようだ」는 실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로, 용법을 분류하면 不確實한 断定, 主觀에 의한 直感的 表現, 완곡한 表現, 比喩, 鬪示, 目的, 内容 指示, 願望・依頼・勸告, 意圖・推移에 의한 狀態로 구분할 수 있다.

### (1) 不確實한 断定

文末의 用言에 주로 접속되어 쓰여지며, 상당한 객관성이 있는 근거를 기초로 하거나, 이렇다 할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사양하는 감정으로 부드럽게 단정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객관성이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らしい」의 용법과 거의 같다. 國際交流基金(1980)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그 장면의 상황과 주어진 정보를 기초로 해서 불확실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 것이다.<sup>15)</sup>

8) 落ちた女が葉子だと、あっと島村もわかったのはいつだったろう。

人垣があっと息を呑んだのも駒子があっと叫んだのも、

15) 國際交流基金(1980), 『教師用日本語ハンドブック④ 文法Ⅱ』, 凡人社, p134

実は同じ瞬間のようだった。(雪国下、 p.160)

9) ただすがすがしい満足のなかに静かに眠っているようだった

(伊豆の踊り子, p.26)

10) 時枝ももう民子に何の反感もなく、同情しているようだった。

(母の初恋, p.130)

11) どうも近来は人間が物見が高くなったようすがな

(わが輩は猫である。 p.189)

위 예문에서처럼 상당한 객관성이 있는 상황과 정보를 가지고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조동사 「らしい」의 용법과의 차별은 거의 없다. 8)~9)은 10)~11)에서처럼 명확한 근거가 되는 정보는 없지만 그 장면이 상황으로부터 그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화자의 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 (2) 主觀에 의한 直感的 表現

화자가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명확한 상황이나 정보는 없지만, 그 장면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극히 主觀的이고 直感的인 印象에 기초해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표현이다.

12) 何となく寒くなってきたようだ。(国際交流基金(1980), p.135)

13) すると、いつの間にか心がせいせいして…忘れて、生れ変わったような

気持になる。(わが輩は猫である。 p.22)

12)~13)은 화자가 판단을 한 이렇다 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도 없다. 극히 주관적인 또는 직감적인 印象에 기초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는 경우의 표현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 (3)婉曲한 표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단정을 피하려는 표현이지만,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는 오히려 충분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가미되어 단정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와 상대방의 心情이 입장을 배려하려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14) 入試地獄は当分解消しそうにもないようだ。(国際交流基金(1980)、p.136)

15) 気が進まない用なら、お断りになってもいいんですよ。

(国際交流基金(1980)、p.135)

16) 今日も天気がいいですね。一ええ、そのようです。

14)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단정을 피하려는 것이 보인다. 반면에 15)은 단정을 피하여 상대의 心情과 立場을 배려하고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이다. 16)에서는 相対의 話題에 적극적 동참을 피하려는 경우이다

### (4) 比喩

「A는 B와 같다」 「B와 같은 A이다」와 같은 화자가 A라는 대상을 표현할 때 사물의 性質, 状態, 形象, 動作 등이 유사한 B에 比喩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B는 A가 아니다. 또는 「~ににっている」라는 의미로 즉 A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B를 外見으로 비슷한 대상으로서 설명의 도구로 나타내고 있다.

「~ようだ」는 먼저, 결국 「~に似ている」의 뜻을 나타내게 되는 모습이나

상태를 비유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예로,

17) まるで石のように固いパンだ。

18) 今日は寒くて、まるで冬のようだ。

17)처럼 빵이 굳어 있는데, 그 굳은 상태가 돌과 같다고 비유한다든지, 18)처럼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겨울에 비유하여 추위를 나타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돌이나, 겨울을 비유하는 것은 話者の 감각을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9) 秋風が来ると、その羽は薄紙のようにヒラヒラ揺れた。(雪国下、p.4)

20) よほど疲れているらしく、死んだように眠っている。

(国際交流基金(1980)、p.53)

21) 「日本から来たの? おにぎり作ってきたわよ。たべてね」とまるで私を歓迎しているように話しかけてきた。(文章作法, p17)

22) 一つ一つの言葉を取り出して見ると、まるで命のない道ばたの小岩のような感じがするけれども、用いられる場所に困っては光を放つようにも、脈々としてよむ人のむね奥に迫ってくることもある。

(文章作法, p19)

위의 예문 19)~20)의 「ようだ」는 그 모습이나 상태를 대상이 되는 무엇인가에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즉 「...に似ている」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ようだ」의 比喩 의미는 비유가 적절하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紅葉のような手」 「蚊のなくような声」 「雪のように白い肌」 「芋を洗うような混雑」 등과 같은 비유로서 형식이 固定화된 것도 많다. 21)과 22)의 「ように」는 「まれで」라는 陳述부사<sup>16)</sup>와 함께 쓰여져 한층 비유의 의미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22)의 비유의 표현은 체언에 접속되어 사용되

는데 이 때의 「のようだ」「の」「である」라는 지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종의 指定 助動詞로 취급하기도 한다. 17)

### (5) 嚮示

대상의 조건에 맞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나타내는 표현으로, 「Aのように~なB」라고 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嚮示하는데 지나지 않는 修辭法의 일종으로 B의 조건을 구비한 것 중의 하나로 B에 포함되는 下位 概念이 된다. 18)

23) 夏になると、毎日のように夕立がある。(중2, p.105)

24) 人に笑われるようなへまはしないつもりだ。(國際交流基金(1980)、p.55)

위의 예문 23)~24) 의 「ように」「よう나」 23)의 「夕立がある」 24)의 「へまはしないつもりだ」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것, 또는 典型的인 것으로 嚮示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있다면 話者의 判斷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표현하여도 된다. 18)에서와 같이 특정한 사람, 시간, 장소 등을 예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특정한 사람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경멸하는 기분으로 많이 사용된다. 19)

예시적인 용법의 일종이지만, 23)는 소나기가 많은 것을 24)은 결코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하지 않을 작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

---

16) 「まるで」「たぶん」「いかにも」 등은 각각 文末述語「だろう」「ようだ」「そうだ」 등과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副詞를 陳述副詞(山田)、呼應副詞(橋本)、誘導副詞(渡辺)、서술부사(湯澤)라고도 한다.

17) 吉田金産(1971)、『現代語助動詞の史的硏究』, 明治書院, p.327

18) 森田良行(昭和55)、『基礎日本語2』, 角川書店, p.504

19) 金原鎬(1996)、『日本語의 推量表現에 관한 硏究』,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16

리고 「～という」를 사용하여 引用語에 의한 예시를 나타내며, 표현을 풍부하게 하여 명확한 해석을 하는데 유용하다.

#### (6) 意図・推移에 의한 状態

「ように」의 형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거나, 사태의 推移에 의하여 그렇게 되거나 하는 状態를 나타낸다.<sup>20)</sup>

25) 遅刻しないように気をつけなさい。(国際交流基金(1980)、p.55)

26) 電話という文明の利器が広く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せいもあるが、  
…風潮も出てきている。(文章作法,p.29)

위의 예문에서 「ように」는 어떤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이란 어떤 상태로서 취급되어지는 사항과 일반적인 경향으로 인정되어지는 사태를 말한다. 25)은文末에 오는 「気をつけなさい」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意図가 있는 状態의 표현이며, 26)은 각각 「なったせい」의 내용으로 意図가 아닌 자연스러운 推移의 状態를 나타내고 있다.

#### (7) 目的

「ようだ」의 連用形인 「ように」형으로 행위에 대한 目的을 나타낸다.

27) おくれないように早く行きましょう。(日語助動詞辞典, p.140)

28) 老婆は右の手に火をともした松の木切れをもって、  
その死骸の一つの顔を覗き込むように眺めていた。(羅生門、p.60)

---

20) 日本語教育学会編(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p.378

위의 예문 27) ~ 28)의 「ように」 각각 「行きましょう」「眺めていた」라는 行為에 대한 목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8) 怨望・依頼・勧告

「ように」의 형으로 怨望・依頼・勧告등의 내용을 나타낸다.

29) どうかお無理をなさいませんように(中2, p.23)

30) 芝生には入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29)은 원망을 나타내고 30)는 권고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완곡한 命令指示의 뉘앙스가 있다.

### (9) 内容 指示

「ように」와 「よくな」의 形으로 진술하는 또는 진술된 사항과 무엇인가 일치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뜻을 나타낸다.

31) 思いがけなく菓子にあったので、二人は汽車の来るのも気が付かなかったほど立ったが、そのような何かも、貨物列車が吹き払って行ってしまった。

(雪国下, p.60)

위 31)에서 처럼 연체사 「この」「その」「あの」「どの」와 「次の」등에 접속되어 쓰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물론 用言등에 붙는 경우도 있다.

결국, 「ようだ」는 様態와 比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화자의 直接情報에 의한 주관적인 표현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ようだ」의 특성은 話者

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다른 정보에 의한 판단보다 앞서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推量表現이라 할 수 있다.

### 2.3 「らしい」의 意味와 用法

「らしい」는 어떤 사태에 대하여 상당히 確信을 가진 객관적 근거에 바탕으로 그렇게 파악되어도 좋을 상태인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즉 화자가 事實로서 判定的으로 確言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단서로 하여 사실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대상을 파악하는 경우에 쓰여진다.<sup>21)</sup>

또한, 「らしい」를 붙여서, 그 사물과 같이 있는 것, 그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形状詞」가 된다고 말하며,<sup>22)</sup> 이것은 「특수한 동조사」이므로, 일반적인 문법상에서 기초적인 것은 아니다.<sup>23)</sup>

「らしい」는 形容詞·動詞·助動詞의 終止刑에 붙게 된다. 형용동사에는 그 어간에 붙는다. 명사에는 직접 접속하여 활용되며, 「らしい」의 丁寧刑은 「らしいです」이다.

또한, 「ごきます」·「ぞんじます」가 접속하면 「らしけ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어 있다.<sup>24)</sup>

32) 彼には私の声が聞こえないらしい。

33) かさをさしていないところを見ると、雨はもうやんだらしい。

21) 日本語教育学会編(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22) 塚原鐵雄、『新講日本文法指導要綱』, (中央圖書出版社, 昭和49)、P119

23) 湯澤行吉郎, 『國語法定設』, 明治書院, 昭和52, p187

24) 時枝誠記, 『日本語文法語編』, p207

예 32)은 「らしい」의 접속 형태로써 문말표현을 나타내었으며, 예 33)는 <이미 비가 그친 것 같다>라는 설명이 앞부분의 <우산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말하는 이의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로 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문장 표면에는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단정하고자 할 때 쓰인다.

또한 원칙적으로 현실세계에 대해서, 간접경험에 의한 지식(전문, 타인의 조사결과 등)으로 추론해서 얻는 지식을 나타내는 형태다.<sup>25)</sup> 즉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추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4) 彼は戦争のころには、代書業をしたり、雑貨商をすところまで  
落ち着いたらしい。

35) だれか京都から行った人に、義兄わんおことを聞いたらしいの。

생략된 객관적 상황이나 근거 등을 부사를 첨가하여 보충함으로써, 「らしい」와 호응시키는 경우도 있다.

36) どうも大学生らしい。

37) もう四時で、雨はいつのまにかあがったらしい。

「らしい」를 지배하는 주어는 반드시 화제의 사태에서 3인칭이어야 한다.<sup>26)</sup>

「らしい」는 조동사 「らしい」와 接尾語 「らしい」가 있으나 接尾語 「らしい」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을 피하겠다. 조동사 「らしい」일 경우 「~르 것 같다」라는 推移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으며, 정보의 종류에 의하여 직접정보에 의한 객관적 推量과 간접정보에 의한 婉曲한 表現으로 나눌 수 있다.

25) 益岡隆志外(李漢燮譯)(1992). 『基礎日本語文法』, 時事日本語社

26) 塚原鐵雄(1974)、前掲書, p120

「らしい」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험에 의한 지식과 상당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서 그렇게 판단하여도 좋은 상태라고 우회적으로 단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伝聞 用法으로 표현 내용과 話者의 心的態度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추량표현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각각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 보았다.

## 2.4 판단근거 정보에 따른 意味와 用法

정보전달의 관점에서 현대 일본어의 모달리티 체계 속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일본어의 추량조동사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판단의 근거를 정보로 종류별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주체추량과 객체추량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논함으로써 그 대응관계를 설명하기로 한다. 설명하기에 앞서, 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하게 되면 間接的情報는 신문, 방송, 활자나 타인의 말 등 물리적 매개체를 통하여 외부세계로부터 얻는 정보라 할 수 있으며, 直接的情報는 시각, 청각, 촉각 등 화자 자신의 인지기능을 통하여 외부세계로부터 직접 얻은 정보로 나눌 수 있다. <sup>28)</sup>

### 2.4.1. 간접정보일 경우

---

27) 早津恵美子(1988, pp51~52)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심적태도를 「ひきよせ」(판단 대상의 사태나 판단의 내용을 자기에게 가까운 것으로 포착하려는 태도)와 「ひきはなし」(판단 대상의 사태나 판단의 내용을 자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포착하려는 태도)로 나누고, 이러한 관점에서 직접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ようだ」를 직접정보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らし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직접정보라도 ひきはなし의 태도라면 「らしい」 ひきよ세의 태도를 갖게 되면 「ようだ」를 나타내게 된다.

28) 정상철, 전게서



## (1) ようだ

선행연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간접적 정보에 기초한 추측 판단은 'らしい'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판단의 근거가 간접적 정보라 하더라도 판단의 상황을 말하는 이가 자신 쪽으로 유인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심리가 보여 질 경우에는 'らしい'가 아니라 'ようだ'를 사용한다.

38) 今日では 有閑階級のひまつぶしみたいにおもわれるものとなってしまったが、  
少なくとも桃山時代までの茶の湯はそんな性質のものではなかったようだ。<sup>29)</sup>

39) 新聞で見ましたが、この間の地震によるメキシコの被害は大変なものようですね。  
(朝, 1985, 9)

예문38)은 판단의 근거가 간접적인 정보이지만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자신에게 가깝게 인식하는 사실로, 자신의 심정에 맞추어서 또는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가까운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형식이다. 예문 39) 新聞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판단이지만 <피해는 대단했던 것 같군요>와 같이 그 결론 만큼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경우이다.

만약, 이 용례를 'らしい'로 바꾸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판단에 관해서는 무책임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용례①②는 판단의 근거는 간접적 정보이지만 판단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자신의 추측이므로 자신의 심정에 맞추어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 (2) らしい

「らしい」는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 얻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대

---

29) 早津恵美子(1988), 『'らしい'と'ようだ』, 日本語学, 明治書院,

략 이러할 것이다라는 2차적 판단이 추량 가능하다는 것을 상대에게 말하려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최초의 판단의 책임은 말하는 이에게 없다고 하는 뉘앙스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간접적인 정보에 기초로 한 추측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らしい」는 원칙적으로 현실세계에 대해서 간접경험에 의한 지식추론이므로 「らしい」를 지배하는 주어는 3인칭에 해당된다. 이것은 소설에서 말한다면 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直接情報에 의한 推量과는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항을 표현하고자 함에 있어서 間接情報로 얻은 사실을 돌려서 단정하는 것이다.

40) いい人ね。

それはそう、いい人らしい。(伊豆の踊り子, p.22)

40) 의 예문을 보면 객관적 상황을 판단의 근거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태도, 상대방이나 제3자의 사정을 배려하거나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間接情報 즉 전해들은 사실을 완곡하게 推量하는 것이다. 推量助動詞 「らしい」特徴은 時制의 제한 없이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狀況이나 事情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話者依存度보다는 他情報에 의한 依存도가 높은 것이다.

막연한 미래의 추측이나 가상 세계의 추측을 거의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 상황과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막연한 가상세계에 대한 추측은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文 안에서 추측의 근거가 나오는 경우에 「ので」, 「から」 등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가 오므로 앞의 상황을 근거로 해서 추측할 경우에 쓰여진다.

### (3) だろう

「だろう」는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므로 정보의 근거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정보보다는 직접적인 정보를 기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확인적인 단정을 피하려는 표현을 나타낼 경우에는 간접적인 표현양식으로 「だろう」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発話時の 말하는 이의 심리상태를 직접적이고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추측하려는 의식이 강하다고 하겠다.

41) あじがお父さんちょっとおそいね。と時計を見ながらいった。

42) 人がこむからきつと込んでいるのだろう。

위 용례 41)는 <おじの話では>라는 표현 양식이 생략된 것으로 말하는 이의 판단과 아저씨의 판단과의 심리적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だろう」 불확실한 판단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닐 경우 ‘그렇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을 때 「だろう」가 불확실한 판단을 표현하는 경우와 근거가 되는 정보가 제법 확실성이 있다하더라도 그 정보가 간접적인 정보일 경우에는 말하는 이의 그것을 확인, 파악하려고 하는 「だろう」인 것이다.

「だろう」는 적극적으로 불확실하다라는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판단 과정의 내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과거로서 사태를 판단해버렸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의미적으로도 본래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 2.4.2 직접정보일 경우

### (1) ようだ

「ようだ」의 표현은 사태의 진상은 어떠하더라도 말하는 이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시각, 청각, 자신의 조사 등에 의해 추론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판단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뉘앙스이다.

「ようだ」는 직접적 정보를 근거로 한 추량판단을 하게 되며,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비유해서 나타낼 때 사용하며 시각적인 사물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감각, 지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ようだ」는 시각적인 인상보다는 감각적인 기분이 더욱 강하게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말하는 이가 発話시점에서 얻은 감각에 기초해서 판단한 것으로 말하는 이의 시각에 의해서 느낀 감정을 자신의 추측으로 나타낼 때 쓰여진다. 즉 이 경우는 말하는 이가 자신의 시각, 청각, 촉각 등에 의해 얻은 감각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어떠한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한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판단 아래에서 사용된다.

정보에 기초한 사실은 직접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보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꽤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말하는 이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보에 대해서 말하는 이와 그 정보와의 심리적 거리를 두려고 하는 「らしい」보다는 용법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 (2) らしい

発話 주체의 직접적 정보에 기초한 판단은 「らしい」보다 「ようだ」로 표현

되는 경우가 많지만 판단의 근거가 직접적인 정보이더라도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나 판단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거리를 두어야 할 경우, 또는 그렇게 하고 싶은 심리적 움직임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らし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43) 彼女の表情が一瞬かげったようだ。

44) 何かいやなことを思いたしたらしい。

말하는 이와 정보와의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용례는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등에 관계되는 판단의 경우로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한 추측은 가령 그 근거가 말하는 이가 직접 얻은 정보라 할지라도, 말하는 이의 의견은 일정의 거리를 둔 것이기 쉽다. 왜냐하면 인간의 외면에 나타난 표정과 태도가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는 이가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 표정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외면의 모습이 <한순간 흐려졌다>라는 상태라고 판단 한 것이다. 이것은 「ようだ」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 후, ‘그녀’의 이러한 상태를 근거로 한 ‘그녀’의 마음속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생각했다>와 같은 상태로 된 것을 추측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말하는 이가 거리를 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객관적 상황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며 그 근거에 따라서 화자가 직접 추량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45) 昨夜酔ってたから。ねえ、遅れないわ。女中さんが火をいれに来て、  
みっともない、驚いて飛び起きたら、もう障子に日があってるんですもの。  
とろとろ眠っちゃったらしいわ。(雪国上, p112)

46) 寝常二年までかよった小学校の友だちのことらしかった。(伊豆の踊り子, p.60)

45)에서 「らしい」의 표현은 「昨夜酔ってたから」와 같은 객관적 근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화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直接情報로서의 증거물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 예문이며, 과거를 나타낼 경우에는 「～たらしい」를 사용하는데 과거의 시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6)에서처럼 「～らしかった」로 표현한다. 즉 「～たらしい」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판단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らしかった」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우문내용」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이며 확실한 의식 여부에 관계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그때의 상황을 「우문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했다고 화자가 회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たらしい」는 「～らしかった」로 대체할 수 없는데, 이는 伝聞을 나타내는 「～そうだ」의 용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즉 전달되는 내용 그 자체가 한 묶음으로 연결된 素材로 되어 있어 단지 과거형 「～た」와 「らしい」 사이에 의미의 分節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전달의 「～そうだ」의 分節과 그 性質이 닮은 점이 있다고 본다.<sup>30)</sup>

또한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나타낼 때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완곡적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더욱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らしい」가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신을 판단하는 자신과는 개별의 독립존재로써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의식이 움직이는 경우로 반드시 인간의 외면에 나타난 표정과 태도가 그 사람의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らしい」는 간접적인 정보를 기초로 한 판단양식이 많았으며, 비록 직접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말하는 이 주체가 그 정보로부터 거리를 두고 말하려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30) 日野資純(1975), 「雨が降りそうだ」「雨が降るそうだ」—二つのそうだの違いは何か, 『新日本語講座2』、大久保忠利外編, 汐文社, p.53

### (3) だろう

「だろう」는 말하는 이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위 내면적 근거에서의 추량으로 주관, 태도를 표명하는 모달리티의 표현 중에서도 주관성이 가장 강하며, 추량의 근거의 객관성은 문제되지 않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주관적인 관점으로써 관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직접 경험에서 얻어지는 정보일 경우가 많다.

어떠한 상황 전개가 확정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だろう」를 사용함으로써 의미적으로는 <본래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だろう」앞에 「たぶん」, 「かなり」 등과 같은 부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だろう」는 말하는 이의 추측, 결국은 각각의 정보와 주위의 상황에 기초해 어떠한 사건을 사실에 가깝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양식이므로, 이와 같은 형식은 간접적인 정보에 의한 것보다 직접적인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말하는 이의 완곡한 표현을 나타내기도 한다.

「だろう」의 표현 양식에서는 정보의 근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이의 주관에 기초해서 표현하는 추측의 형식이므로 추측이라는 형식보다는 희망적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며, 「と思う」라는 형식 뒤에서 「だろう」가 접속될 때에는 말하는 이의 강한 어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 3.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기능적 역할의 특징

#### 3.1 「ようだ」와 「らしい」의 기능적 역할

ようだ 와 らしい는 일본어 사전에 추량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실려져 있으며,文末의 표현에 있어서 2語의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2語의 구별이 사전 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조동사라고는 간주 할 수 없을 것이다.

寺村秀夫(1984)는 추량의 조동사 ‘ようだ’와 ‘らしい’는 공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들의 차이는 말하는 이 자신의 추량에 비중을 둘 것인가, 외부로부터 얻은 정보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1)</sup>

47) 梅雨が明けたらあつくなるようだ。

47)' 梅雨が明けたらあつくなるらしい。

정보의 직접성, 간접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ようだ」가 직접적인 정보일 경우가 강하고, 「らしい」는 간접적인 정보가 강한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 장마가 그쳐서 기온이 상승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는 현재의 감각으로 출발해서 <더워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현 상황에서 직접 느껴보는 감각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らしい」는 <장마가 그치면 곧 여름이 와서 날씨가 더워지겠지요>라는 정보가 예고되어 있을 경우이다. 이와 같은 정보에 기초해서 제법 미래의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로부터 판단하게 된다. 이렇듯 같은 추량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ようだ」와 「らしい」의 표현차이는 청자에 입장에서

31) 寺村秀夫(1984)、上掲書、pp.250~260



도 다른 모달리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48) 彼女からそう言われて事務所をじっと見回すと、本当に無駄使いが一秒、一秒行われているようだった。

여기에서 「ようだった」를 「らしかった」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無駄使いが行われている」라고 하는 사태와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ようだ」가 「らしい」를 비교해서 사태와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다.

추량의 근거에 있어서 「ようだ」와 「らしい」를 비교해 보면, 「ようだ」쪽이 「らしい」보다는 「근거의 확실성」이 높다.

위의 예에서는, 실제로 「사무실을 계속 둘러본다」는 것을 보아 「근거의 확실성」은 높은 것이다.

「ようだ」의 의미중에서 「완곡한 추량」, 「주관, 직감적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와, 조동사 「らしい」의 「객관 추량의 표현」과 「伝聞적 완곡 표현」을 나타내는 부분은 상당히 닮아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완곡」, 「추량」의 개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는데, 「완곡」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화자가 발화시 자기의 심증으로는 확실한 판단이라 생각되지만, 만약을 위해서 또는 청자의 심정 혹은 입장을 고려하여, 자기의 생각을 직선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량」은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표현자체도 불확실한 판단 그대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추량 또는 완곡을 나타내는 「ようだ」는 화자 자신이 자기의 감각에 의하여 포착한 판단재료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판단의 책임이 화자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추량이나 완

곡을 나타내는 「らしい」는 화자의 판단재료 사이에 시간·공간·심리적 거리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らしい」로 표현하는 경우는 제3자의 판단일 경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며, 추측의 재료가 되는 사실을 근거로 행해진 2차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판단책임에 대해서는 화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요약하자면, 「ようだ」는 심리적으로 가깝고, 「らしい」는 그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상의 「ようだ」와 「らしい」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ようだ」는 직접적인 정보에 근거한 표현양식으로, 말하는 이의 주관성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らしい」는 언어 사태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정보를 근거로 한 말하는 이의 직접적인 정보보다는 다른 정보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표현양식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ようだ」와 「らしい」를 비교하였을 때 「ようだ」는 화자 의존도 高, 정보 의존도 低, 정보의 확실성은 高이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らしい」는 화자 의존도 低, 정보 의존도 高, 정보의 확실성은 낮을 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2 「らしい」와 「だろう」의 기능적 역할

「らしい」와 「だろう」의 공통적인 특성은 판단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말하는 이의 판단근거가 간접적인가, 직접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 「らしい」는 간접적인 정보를 근거로 한 말하는 이의 추측이며, 「だろう」는 직접적인 정보를 근거로 한 말하는 이의 추측이라는 점이다.

49) あの人はあまり丈夫ではないだろう。

예 49)은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저 사람은 괜찮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하는 이의 단순한 추측과 동시에 판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0) かさをさしていないところを見ると、雨はもうやんだらしい。

예 50)는 <이미 비가 그친 것 같다>라는 설명이 앞부분의 <우산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말하는 이의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로 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문장 표면에는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단정하고자 할 때 쓰인다.

즉 「らしい」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기초한 반면에 「だろう」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단순한 예상, 추측의 표현에 사용된다.

51) 力のあるプロダクションが強引に自分の所のタレントをCFやTVドラマに出して顔をうれば、ある程度は人気も出るだろう。

51) '(??) 力のあるプロダクションが強引に自分の所のタレントをCFやTVドラマに出して顔をうれば、ある程度は人気も出るらしい。

「だろう」라는 말하는 이의 판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 상황의 전제조건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앞 상황과 뒤 상황의 인과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이므로 「らしい」의 사용은 부적합하다.

52) そのいわれを調べるのも面白いだろうと思った。

52) '(??) そのいわれを調べるのも面白いらしいと思った。

「と思う」의 앞에서는 「だろう」는 사용될 수 있다하더라도 「らしい」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と思う」라는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말하는 이의 입장

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말하는 이의 심리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と思う」라는 형식에 정보의 근거가 확실히 나타나있는 「らしい」를 사용하면 부적합하다.

53) 遅くても2000年には、エイズの治療薬が開発されるだろう。

53) 遅くても2000年には、エイズの治療薬が開発されるらしい。

「だろう」는 2000년쯤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에이즈 치료약이 개발되었지라는 막연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らしい」는 에이즈 치료약의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신 물질이 만들어졌다면 하는 현실세계에 실재하는 근거를 전제로 한 추측의 의미가 되어 현실세계 즉 근거를 반영하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らしい」「だろう」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らしい」는 간접적인 정보에 근거한 표현양식이었으며, 「だろう」는 그에 반해, 직접적인 정보에 근거한 표현양식이나 현실세계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未定の 상황을 나타내며, 「らしい」는 현실세계에서 이미 실현된 실제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らしい」와 「だろう」를 비교하였을 때 「らしい」는 화자의존도 底, 정보의존도 高, 「と思う」의 형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だろう」는 화자의존도 最高, 정보의존도 最低, 「と思う」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だろう」와 「ようだ」의 기능적 역할

「だろう」와 「ようだ」의 추량의 공통적인 특성은 말하는 이의 주관의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54) あかりは、気がとかれてならなかった。

もちろん、だからといって迫田のような男に抱かれないとは思わない。

しかし、その点はその人も同じだろう。

위 예문처럼 말하는 이의 주관이 강하게 나타난 용례, 이와 같이 말하는 이의 주관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근거가 되는 정보의 의존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だろう」는 보다 강한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비해, 「ようだ」는 어떠한 근거, 상황에 기초한 추량 판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だろう」와 「ようだ」에 비교하면 추량으로써의 객관적인 근거가 지극히 약할 뿐만 아니라 추량되는 판단이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55) そのくらいのことは常識として知っているだろうと思った。

55) ' (??)そのくらいのことは常識としてしっているようだと思った。32)

「と思う」의 앞에서는, 「だろう」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ようだ」·「らしい」 사용할 수 없다. 직접적인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므로 「だろう」와 「ようだ」의 형식에 적합하기도 하다. 하지만 「と思う」의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약한 심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だろう」에 비해서 객관적이며, 확실한 근거에 의한 추량을 하는 「ようだ」는 접속할 수 없는 것이다. 「だろう」는 <推量の 객관적 근거가 극히 薄弱>하기 때문에, 「と思う」와 접속할 수 있다.

56) この国の文化に一層に理解を深めたい。

---

32) 紫田武外, (1982), 『ことばの意味3』, 平凡社

56) 学ぶべきものも多い{だろう・ようだ}

위 예문은 「だろう」와 「ようだ」 어느 쪽도 가능한 문으로 추량판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말하는 이의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だろう」와 「ようだ」의 비교는 정보의 직접성의 표현에서 「ようだ」는 표현의 개인의 판단이 강한 반면에 「だろう」는 표현자 개인의 판단이라고 하는 점을 한정하는 직접적인 정보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양식으로 추량표현보다는 말하는 이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57) 十一時にちょうどろうろろするところである。 鈴木のことだ。

ちゃんと時間通りにやってくるだろう

57) '(??) 十一時にちょうどろうろろするところである。 鈴木のことだ。

ちゃんと時間通りにやってくるようだ。

위 예는 듣는 이가 없는 상황에서의 말하는 이의 독백형식이다. 처음에는 아무런 실제적 근거가 없이, 단지 막연한 희망을 중얼거리듯 말하는 이의 강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다. 이런 文의 「だろう」는 文末 표현으로서 자연스러운데 「だろう」를 「ようだ」로 바꾸면 부자연스러워진다. 동일 장면에서 「だろう」이 発話된 지후에 鈴木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직접 통화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문말표현으로서 「ようだ」문이 적합해지면 오히려 「だろう」로 표현했을 때는 부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은 말하는 이의 직접적인 확인을 통한 판단 양식으로 직접적인 정보에 근거한 사실에 가까운 판단양식이기 때문이다.

결국, 「だろう」와 「ようだ」의 기능은 직접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だろう」의 판단양식에는 주관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정보의 직접성에 근거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이의 주관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だろう」와 「ようだ」를 비교하였을 때 「だろう」는 화자의존도 最高, 정보의존도 最低, ~と思う의 형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ようだ」는 화자의존도 高, 정보의존도 低, 「と思う」의 형식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だろう」, 「ようだ」, 「らしい」의 기능적 역할의 특징을 토대로 본고의 고찰 대상인 일본어의 추량조동사 「だろう」 「ようだ」 「らしい」의 의미, 용법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 4. 「だろう」「らしい」「ようだ」의 비교분석

### 4.1 조건절과의 상관관계의 분석

조건절과의 상관관계로서 「だろう」「らしい」「ようだ」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だろう」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조건절과는 잘 호응하는데 반해, 현실을 반영하는 조건절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らしい」「ようだ」는 현실을 반영하는 조건절과 호응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조건절과는 호응하지 않는 변별적 특징을 알 수 있다.

58) 彼がもう少し僕の悪口を言い続けていたら、僕は彼を殴っただろう。

彼がもう少し僕の悪口を言い続けていたら、僕は彼を殴ったようだ (??)

(??) 彼がもう少し僕の悪口を言い続けていたら、僕は彼を殴ったらしい。33)

위 예문은 「彼がもう少し僕の悪口を言い続けていたら」라는 조건절은, 현실에 반하는 오히려 가상의 세계에 가까운 내용을 나타낸다. だろう는 이 같은 조건절과 자연스럽게 호응하는데 반해, 「ようだ」「らしい」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움을 확인 할 수 있다. 「だろう」는 「たとえ~だとしても、~だろう」「せめて~ならば、~だろう」「もし~なら、~だろう」와 같은 문형으로 자주 쓰인다. 일본어 교과서에 따라서는 「だろう」의 전형적인 문형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형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이른바 가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문형으로 볼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런 문형에서 「だろう」는 자연스러운데 반해, 「らしい」「ようだ」는 부자연스럽다.

---

33) 仁田義雄(1991)에서 인용했다.



59) 先生もしらなかつたところを見ると、連絡が充分に取れていなかつたようだ。

先生もしらなかつたところを見ると、連絡が充分に取れていなかつたらしい。

(??)先生もしらなかつたところを見ると、連絡が充分に取れていなかつただろう。

위 예문은 조건절과의 호응은 오히려 「ようだ」「らしい」쪽이 자연스럽고, 「だろう」는 부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조건절 「先生もしらなかつたところを見ると」는 앞서의 조건절과는 반대로,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점이 「だろう」와 「ようだ」「らしい」의 자연스러움이 역전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건절이란 점에서는 앞서의 반사실적 조건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몰라도, 의미적으로는 정반대로 현실세계에 실재하는 사실, 더 나아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지어, 「だろう」는 현실세계에 실재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조건절과는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60) 天気予報によると、明日は雨が降るようだ/らしい。

(??)天気予報によると、明日は雨が降るだろう

위 예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ようだ」「らしい」에 비해, 「だろう」는 판단의 근거를 명시한 문맥과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위의 조건절인 「天気予報によると」는 가상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현실세계에서 화자(話者)가 확인한, 이른바 실재적 근거의 존재를 명시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도 「だろう」는 현실을 반영하는 조건절과는 호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까 싶다.

그렇다면 동일한 조건절이 주어진 文안에서 추량표현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의미의 차이는 어떨까.

61) 彼女が何をいっても、彼はしんじてしまうだろう。

彼女が何をいっても、彼はしんじてしまうようだ/らしい。

앞서 언급했듯이, 위 문장은 문말의 「だろう」와 「ようだ」「らしい」의 차이가 이외에는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접속조사 「ても」의 의미가 문말 형식과 호응하여 전혀 다르게 반영된다. 「だろう」文은 그녀가 아직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앞으로 말한다면 그가 믿어 버릴 것이라고 예측된다는 의미이다. 반면 「ようだ」「らしい」文은 실제로 그녀가 당치도 않은 말을 수시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부 믿어 왔다는 뜻을 나타낸다.

요컨대, 「ようだ」「らしい」文의 「ても」는 그녀가 그에게 어떤 말을 했음을 현실세계의 기정사실로 나타내고, 「だろう」文의 「ても」는 아직 현실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은 미연(未然)의 내용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だろう」와 「ようだ」「らしい」의 의미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동일한 조건절이 문말의 「だろう」또는 「ようだ」「らしい」와 호응하여, 전자는 비현실을, 후자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 4.2 근거제시와 비근거에 따른 분석

「ようだ」「らしい」는 현실세계에 실재하는 「실재적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근거 전제형」추측이라고 한다면 「だろう」는 그러한 실재적 근거를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 「근거 비전제형」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

62) (ただ漠然とした希望をつぶやくかのように)

いずれは彼女もわたしの気持をわかってくれるだろう。

{(O)だろう / (??)ようだ / (??)らしい}

(このとき、彼女から愛情のこもった電話がくる)

うん、やはり、わかってくれたようだ/らしい。

{(??)だろう / (O)ようだ / (O)らしい}

처음엔 아무런 「실재적 근거」도 없이 단지 막연한 희망을 중얼거리듯, 「いずれは彼女も気持を分かってくれるだろう」라는 식으로 판단답지도 않은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文은 「추측판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단순한 「희망요망」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이다. 이런 문장에서 「だろう」는 문말 형식으로써 자연스러운데, 「だろう」를 「ようだ」「らしい」로 바꾸면 극히 부자연스러워진다. 동일 장면에서 「だろう」文이 발화된 직후에, 그녀로부터 애정이 가득 담긴 전화가 왔다고 하자, 즉 「실재적 근거」가 나타났다고 하자.

이러한 「실재적 근거」의 출현을 명시한 후에는, 정반대로 「ようだ」「らしい」가 문말 표현으로써 적합해지며, 「ようだ」「らしい」를 「だろう」로 바꾸면 극히 부자연스러워진다. 문말 표현으로써의 적합성에 있어서, 이 같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한 발화 장면에서 실제적 근거(전화)의 출현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동일한 추측문에 반영된 의미의 차이는 어떨까. 물론 「だろう」와 「ようだ」「らしい」가 모두 자연스러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단, 앞서 설명한 「だろう」와 「ようだ」「らしい」의 상이한 특성 때문에, 동일한 추측문의 내용을 각각, 「だろう」는 그저 막연한 추측의 의미로, 「ようだ」「らしい」는 현실세계에 실재하는 근거를 전제로 한 추측의 의미로 달리 반영하는 대비적인 경향이 있다.

「ようだ」「らしい」의 공통점은, 현실에 실재하는 근거를 가지고 불확실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이다. 현실 세계의 판단이라는 점은 가상 세계의 추측에 쓰여지는 「だろう」와는 다르며 「ようだ」「らしい」는 話者の 머릿속에서만 존재한 것과 같은 가상의 세계를 묘사할 수 없다.

63) あの人は泣いているようだ/らしい。

あの人は泣いているだろう。

「실재적 근거」를 전제로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ようだ」「らしい」는 발화현장에 실재하는 어깨를 들썩거린다거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실재적 근거를 확인하고 판단했음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だろう」은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다소 막연한 추측을 한 것으로 느껴진다. 한국어로 옮긴다면, 「だろう」文의 「あの人」는 「그 사람」으로, 「ようだ」「らしい」文의 「あの人」는 「저 사람」으로 각기 달리 번역해야 한다는 점도 특이하다.

64) 遅くても2000年には、エイズの治療薬が開発されるだろう。

遅くても2000年には、エイズの治療薬が開発されるようだ/らしい。

「だろう」文은 실제적근거를 별달리 전제하지 않고 “2000년 쯤엔 뭐 어떻게든 에이즈 치료약이 개발되겠지”하는 정도의 막연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ようだ」「らしい」은 실제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중이고, 그러한 실제 진행상황으로 볼때, 늦어도 2000년까지는 開発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동물실험에서 성과를 올렸다거나 하는 「실재적 근거」에 영향을 받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Ⅲ. 結論

본고에서는, 커뮤니케이션중 오용하기 쉬운 표현인 추량의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狀況과 場面に 맞는 적절한 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接統形態와 用法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추량의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을 이해하기 위하여 모달리티적 입자에서 화자가 말하고 하는 명제를 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지 설명했다. 즉, 모달리티란 文中에는 말하는 이에 따라 어떤 특정한 사태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판단 태도가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고 보고문을 명제와 모달리티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의 판단 태도는 상대방에게 확고한 신념을 알리는 確言,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疑問, 듣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의 命令, 禁止, 依頼, 참이라고만 판단할 수 없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서술하는 概言, 어떠한 사실을 덧붙여서 서술하거나 알리는 説明등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구별하고 그런 모달리티체계속에서 추량의 「だろう」「ようだ」「らしい」가 概言의 분류속에서 설명해 보았다.

「だろう」는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단순한 추측으로 서술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이의 완곡한 의지나 확인요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판단의 근거는 직접적인 정보에 의해 말하는 이의 추측이었지만, 판단의 근거가 없는 순수한 자신의 판단의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표현은 말하는 이의 추측이라고 하기보다는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아야 하겠다.

「ようだ」는 말하는 이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인 사실의 관찰을 거듭한 추량, 말하는 이의 감각에 의한 추량으로 사건의 전환에 접속되는 경우에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직접 체험한 일에 기초한 추정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이의 완곡 표현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추측을 나타내는 「ようだ」차체의 성질이 다른

형태에 비해 정보의 의존성보다는 말하는 이 자신의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 의존도에서 간접적인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일 경우에는 긴장감과 현장감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らしい」는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정보원의 기초로 사실을 추론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ようだ」보다는 추측의 경우가 강한 경우에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추론이기보다는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해서 나타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말하는 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가 애매하기는 하나 간접적인 지식이나 경험, 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らしい」 직접적인 정보에 의한 말하는 이의 판단 일 경우에는 정보와 말하는 이와 심리적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즉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려고 하는 경우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이들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情報 의존에 있어서의 상호 비교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ようだ」와 「らしい」의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에 상당히 가까운 상태라고 인정될 때, 확실히 다른 사람 측의 문제에 대한 추측이라면 「ようだ」가 아니라 「らしい」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らしい」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간접적이고, 자기 자신의 감각 이외의 자료로부터 수집된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가 <푸른 하늘을 보면서>와 같은 형식은 부적합하다.

둘째, 「らしい」와 「だろう」의 경우는 어느 쪽이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판단이 강인가에 대한 문제로 「だろう」는 말하는 이 자신의 표현인데 비해 「らしい」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의존한 판단의 표현이었다.

셋째, 「ようだ」와 「だろう」의 경우는 직접적인 정보를 근거로 한 말하는 이의 추측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ようだ」보다는 「だろう」쪽이 다소 막연한 추측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의 사용법에는 지금까지 일본어 교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교문법에서 가르치지 못한 미묘한 상이

점이 존재함을 다시 한번 말해둔다. 본 연구가 의미용법에 대하여 완벽히 설명하고 있다고 볼수 없지만,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상호표현간의 유사성과 그 상이점을 모달리티적 방법으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명료해졌을 것으로 본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모달리티의 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심도 있는 연구하여 그 범위를 넓히 고자 한다.

## 参 考 文 献

- 日本語教育学会編、『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1982
-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現代日本語文法 4-第8部 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2003
- 国際交流基金，「教師用日本語ハンドブック④ 文法Ⅱ」，凡人社，1980
- 仁田義雄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ひつじ書房，1991
- 山口明穂・秋本守英 編，『日本語文法大辞典』，明治書院，2001
- 仁田義雄・益岡隆志，『日本語のモダリティ』，くろしお出版，1989
- 寺村秀夫，『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Ⅲ』，くろしお出版，1984
- 益岡隆志．『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1991
- 益岡隆志外(李漢燮訳)．「基礎日本語文法」，時事日本語社，1992
- 森山卓郎・仁田義雄・工藤 浩，『日本語の文法3 モダリティ』．  
岩波書店，2000
- 森山卓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聞き手情報一聞き手情報配慮非配慮の理論一」  
『日本語のモダリティ』，仁田義雄益岡隆志，くろしお出版，1989
- 森山卓郎，『日本語における「推量」をめぐって』，言語研究，1992
- 森田良行，『基礎日本語2』．角川書店，1980
- 北原保雄，『日本語助動詞の研究』，大修館書店，1981
- 紫田 武外，『ことばの意味 3 一辞書に書いてないこと』，平凡社，1982
- 木下りか『ヨウダ・ラシイー真偽判断のモダリティの体系における「推論」』，  
日本語教育 96号，1998
- 菊地 康人，『「ようだ」と「らしい」－「そうだ」「だろう」との比較を 含めて』，  
国語学 第52巻1号，2000
- 早津恵美子，『'らしい'と'ようだ'』，日本語学，明治書院，4月号，1988
- 宮岡達夫・仁田義雄，『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くろしお出版，1995
- 塚原鉄雄，『新講日本文法指導要綱』，中央図書出版社，1974



- 湯沢行吉郎, 『国語法定設』, 明治書院, 1979
- 吉田金産, 『現代語助動詞の史的研究』, 明治書院, 1971
- 日野資純, 「雨が降りそうだ」「雨が降るそうだ」一二つのそうだの違いは何か,  
『新日本語講座2』、大久保忠利外編, 汐文社, 1975
- 김원호, 「日本語의 推量表現에 관한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 김동욱 「「だろう」와 「ようだ」「らしい」의 차이」日語日文學研究 第31編, 1997
- 백수희 「日本語의 推量表現에 관한 研究 - そうだ、ようだ、らしい를 中心으로」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學位論文, 2002
- 윤상실 「日本語의 非確言的表現의 における 話者의 役割-現代語의 ‘だろう’ ‘ようだ’  
‘らしい’ ‘そうだ’의 弁別特徵을 めぐって」国語国文研究, 北海道大學国文學會,  
1989
- 장진아 「日本語文末推量表現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8
- 정상철 「ダロウ의 意味·用法의 概觀」 일어일문학회, 1994  
『日本語認識モダリティ의 機能的 研究-ダロウ을 中心에』, J&C, 2004
- 한원형 「だろう、でしょう에 관한 一考察」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1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	학 번	20038042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김 미 양	한문: 金美良	영문: Kim Mi Yang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우미아파트 103동 403호				
연락처	016-608-3723	E-MAIL: my21cty@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眞僞判斷의 모달리티에 관한 考察 - 推量表現 「だろう」「ようだ」「らしい」을 中心으로 - 영문 : A Study of the inferential expressions in Japanes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6년 01 월 02 일

저작자: 김 미 양(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